

建築空間研究

母空間의 原型：山과 天

林 忠 伸

建築學科

〈요약〉

建築空間의 認識이 集團的無意識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그中 外部空間을 대상으로 空間體系의 原型의 image를 찾아 보려 한다.

수석 建築空間의 母空間體系에서 山과 天이 갖는 空間的 意味를 風水地理說과 Eliade를 연결함으로써 찾아 보았다.

A Study of the Architectural Space : The Mountain and the Sky as the Vertical Reference

Choong Shin L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bstract〉

The spatial analogy that exists between the Eliadean microcosm and the Feng-shui (風水), an old geomantic theory of a probable Chinese origin, is explored in an effort to establish the spatial meaning of the mountain and the sky.

The paper states in the end that not only a mountain but a tree or a roof as well, sharing the similar image, provide the man with the hierachial system of the vertical reference in his environs, so that he may well establish himself within the macro-space of the Round Sky and Flat Earth (天圓地方). The Earth is not elaborated in this paper.

I. 序 言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¹⁾ 임에도 불구하고 建築空間에 관한 研究는 아직도 科學的 合理主義의 斜角이 비우르고 있는 캄이 같다.

建築空間에 대한 접근은 Hardware的인 것과 Software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建築空間이 人用 하여야할 物理的 機能 [physical function]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前者로, 그 외의 心理的 機能

能이란 관점에서의 접근을 後者로 보고 本論文은 後者の Software的 관점에서 建築空間에 접근하려 한다.

建築空間이 어떻게 생겨있는가 하는것과 그 空間에서 사람이 무엇을 認識하느냐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다. 사람의 認識은 選擇의이기 때문이다.

建築空間에 Software的인 접근을 시도하는 建築理論가들이 흔히 모든 空間要素들을 같은 比重으로 혹은 같은 屬性으로 한꺼번에 다루려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混亂을 초래하기 쉽다.

(1) 老子道德經, 선한을 이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의 끓보는 그 빙곳에 있다는 뜻임.

本論文은 사람의 空間認識에 先驗的 空間感知能—사람이 空間에서 感知하는 原型的 image—이 우연적으로 紹用한다고 보는 입장은 확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要素 中에서 建築空間의 母空間을 이루는 것은 天·地로 본보고 여기서는 前者를 주로 다루기로 한다.

II. Eliade의 mistic geography

人間의 無意識에 관한 C.G.Jung의 理論 中에 集團의 無意識 [the collective unconscious]이란 것이 있다.

“集團의 無意識이란 사람이 조상 代代로 물려받은過去의 潜在의 기억의 집합체이다. 그過去는 人類以前의 산과 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集團의 無意識은 사람의 遺傳的인 被繼承에서 비롯되는 神聖な 緊密이며 이는 代代로 바뀌어온 경향의 결과로 쓰인 것이다. 集團의 無意識은 사람의 個人的 경향과는 다른 緊密성이 있으나 人類共通의 [universal]인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人類가 대개로 소사한 集團의 無意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²⁾

Jung은 사람들의 꿈에 共通의으로 나타나는 사항들, 또 각종 神話 혹은 說話들이 다루는 凡世界的인 共通사항들이 있음을 근거로 集團의 無意識의 존재를 설명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原型 [archetypes]이라 불렀다.

序言에서 언급한 先驗的 空間感知能, 혹은 空間に 갖는 原型的 image가 있으리라는 전제는 위의 集團의 無意識의 存在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心理學者인 Jung이 建築空間理論에 직접적으로 적용될만한 集團의 無意識의 空間的側面을 다루지는 않으나 空間에 대한 Jungian의 要素은 오히려 宗教歷史家인 Mircea Eliad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³⁾

Eliade는 凡世界的으로 殘存하는 原始宗教의 儀式, 說話의 事項들, 및 傳統의 規矩들을 幾何形 하게 결집하여 그 共通의 要素를 추출하였다. 그中 하나가 mistic geography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사는 領域을 하나의 microcosm으로 보아 왔으며 이러한 microcosm에는 한개 혹은 여덟개의 Centre가 있는 것이다.

(2) C.S. Hall/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p.83

(3) 本人은 1968 緒사학회 논문인 water in architecture에서 Eliade를 광범위하게 인용, 설명하였다. 그의 시사점은 소개해 준 이는 Columbia 大學校의 Monsignor Ray 神父이다.

(4) M. Eliade, Images and Symbols, Harryill Press 1961, p. 37~41

(5) 徐善繼外, 風水地理明堂全書, 明文堂 1975, p. 27, 28

Centre는 天[Heaven], 地[Earth] 및 地下[Hell] 사이의 交通 [communication]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데 있다. Centre는 구체적으로는 神山 [Cosmic Mountain], 神樹 [Cosmic Tree], 神柱 [Cosmic Pillar] 神殿 [Temple] 等의 형태로 存在한다.⁽⁴⁾

소위 風水說話에서의 太白山 神嶽樹,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래하는 太祖山, 기단당 等과 모두 Eliade의 Centre로 當당하는 것들이다.

Eliade는 Images and Symbols 等 그의 著作에서 위의 Image of Centre가 사람의 生存領域을 성립시키는 한가의 原初의이고 普遍의인 要素이을 충분히 肯定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할만한, Center를 이루는 外形의 사항들의 垂直性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microcosmic 空間に 서 神山, 神樹, 神柱, 神殿, 等은 空間의 垂直의 要素로서 존재하는게 이는 天地交通 機能으로 브아 타당한 귀결로 보이겠다.

III. 風水地理說에서의 垂直의 要素

소위 風水地理說의 언급되는 太祖山과 小祖山이란 것이 있다.

“祖宗에는 太祖山과 小祖山이 있으나, 太祖山은 之에 빠는 데에서 멀티 멀어진 데으로 算上시 高大하고 壯偉하여 高百餘里를 넘어서 큰것은 五岳과 같고, 小운것은 한 곳의 으뜸되는 山이요. 더 작은것은 한 地方의 高峻하는 山으로, 이것을 이른바 太祖山이라 한다. 太祖山의 형체는 巍然히 높고 커서, 雲霧에 빠져, 雲龍樓覽殿의 數十층건물과 같고, 그 發出하는 가지는 繁然하여 之에 될 수 없이 많다.

(中 略)

小祖山은 곧 主山을 말함이다.
行龍이 이미 太祖山을 떠나 각각 支派로 分화되어 穴이 되려는 둑과 높은 山이 우뚝 솟아있는 것으로, 누군가 節을 지나자 遊하여 곧 穴場을 넘는 것이다. 高大하고 가까이 있는 山이 小祖山이다”⁽⁵⁾

즉, 더 가까이 높이 솟아 터의 등반이 역할을 하는 山이 小祖山 혹은 主山이며, 부근 地勢로 브아 山形의 어버이 格이 뚜렷한 山을 太祖山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小祖山, 太祖山은 터의 등반이 를 이루는 하나의 位階의 山形體系로 볼 수 있다.

그外에도 터의 前方에 솟은 山을 朝山 혹은 安

山, 左右의 山形을 靑龍, 白虎라 하여 중요시함은 여기서 再論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風水地理說에서 山을 龍이라 부르는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龍이란 결국 昇天할 潛在的운명을 지닌 神秘로운 동물이다. 風水地理說에서 직접적으로 山을 昇天 혹은 天降에 연결하여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山을 암시적으로 天과 연결한 것은 前章의 내용과 비교해 볼때 어떤 菲연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菲연성은 本論文의 V章에서 명확해 질 것이다.

V. Eliade와 風水地理說

앞서 소개한 Eliade의 Mistic geography와 風水地理說 사이에는 또한 空間構造上의 類似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Eliade의 microcosm과 風水地理說의 局은 다 같이 領域개념을 갖고 있으며, Centre가 前者에서의 垂直的要素인 한편, 山은 後者에서의 垂直的要素인 것이다. 다만 Centre는 天地交通의 구체적인 例현一儀式이든, 혹은 說話的事實이든—이 연관되어 있을때 사용하는 用語로, 後者の 山은 어디까지나 地形上의 山—龍이라 부르든 말든—이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이러한 空間構造上의 類似性은 그렇다 하고라도, 우리나라의 마을 중 상당수의 마을에서 Eliade의 Centre가 風水地理說의 主山에 위치한다.⁽⁶⁾

안동군 도산면 宜仁 마을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宜仁 東南方에 솟은 山이 있어 이 마을의 主山을 이루는데, 이 山의 頂上 바로 밑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一年에 한차례 祭를 치내는 서낭당이 위치하며, 이 山은 지도상에 공식 명칭은 없으나 흔히 서낭산이라 불리워 지기도 한다.⁽⁷⁾

물론 Centre가 主山에 위치하지 않는 예도 있으니, 宜仁에서 빗물 하나 건너 있는 섬마을—안동군 도산면의 익촌 2동—의 경우 비교적 平地에서 그런지 몰라도 主山 개념은 찾을수 없었으나, 나못더 근처의 堂집과 이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끗대가 洞祭

를 치내는 곳이다.⁽⁸⁾ 즉 섬마을의 경우는 宜仁과는 달리 平地에 Center를 갖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 마을에서 볼 수 있는 山上 Centre와 平地 Centre는 우리나라 全域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 유형들인바,⁽⁹⁾ 本論文에서는 前者만을 다루기로 한다.

山上 Centrte가 王山에 位置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 듯하다.

“部落祭神의 神域은 그 後山에 설치한 것은 風水의 國心이 由來하는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風水의 概念이 依다니 部落의 後山은 生氣(후복은 發生하는 神龜의 地力)의 흐름을 蓄積調整하는 이를 明堂 即 山下의 部落에 濫溉하는 要機(電氣로 말하자면 變壓配電所 같은 것)이다. 따라서 部落民이 慶와 幸福을 授與하는 祭神을 그 後山에 奉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¹⁰⁾

위의 인용에서 神域이라 함은 곧 Eliade의 Centre이며, 後山이라 할은 風水地理說의 主山임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V. 山과 天

人類의 集團의 無意識의 一片인 天地交通慾求, 그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인 Image of Centre, 또한 Centre와 風水地理說의 主山과의 普遍의 一致⁽¹¹⁾ 等이 이제까지의 출거리려니와, 山과 天地交通의 연관성이 山의 空間의 垂直性에 기인한다는 점은 이미 달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山의 垂直性과 天이 어떤 구체적인 空間關係에 있는가.

山과 天은 두개의 客體가 아니다. 峰高一尺敢摩天⁽¹²⁾은 단지 하나의 詩句일 뿐이 아니다. 人類는 太初부터 항상 하늘 아래 山을 보아 왔다. 하늘 없이 山을 볼수 있던 적이 결코 없었다. 즉, 山上天 혹은 天下山은 그대로 하나의 空間의 image로 認識되는 하나의 現像[phenomenon]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을 막연히 外界로 뻗어 나가는 同質[homogeneous]의 無限空間 따위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古代人们은 하늘을 半球面으로 보았다.⁽¹³⁾ 그렇

(6) 朝鮮總督府, 朝鮮의 鄉土神祀 部落祭, 民間信仰資料叢書 1937, p. 165, 166.

(7) 本大學 建築學科, 安東市 물지구 현지조사자료 1976

(8) 上同

(9) 註6과 같음.

(10) 上同.

(11) Centre가 主山에 位置한다는 뜻

(12) 金炳潤(갓갓)의 詩句, 봉우리가 조금만 더 높으면 하늘에 당을듯 하나는 뜻

(13) Bruce Vawter, A Path through Genesis中 Semitic cosmogony에서 보면 그들은 하늘을 半球面으로 보고 있다.

東洋의 天圓地方 개념도 같다.

세 보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늘이 실제로 어떤가 생각 있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認識하느냐는 것과 전혀 별개 문제임은 序言에 언급한 바와 같다.

或者는 以後의 科學的 知識의 발달에 의하여 사람의 하늘에 대한 記憶이 달라질수 있었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이다. 그러나 本論文은 母空間의 原型的 image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人類의 集團的 無意識의 領域에 속하는 사항이다. 더욱이, 空間感知의 基礎기관은 눈이니 사람의 눈이 空間의 科學的 本質을 분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空間認識은 可視現像이 우선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空間을 論하는 한 하늘은 보이는 그대로 半球面으로 보아야 한다.

山天의 空間의 관계 및 하늘의 空間의 形態는 위와 같은 바. 이 中山天의 空間的 關係는 비단 山天이 不對稱 특성이 아니라 空間의 으로 山에 類似한 image를 갖는 自然物 或는 人工構造물이 모두 하늘과 類似한 관계를 이룰수 있다고 본다. Eliade의 Centre는 山 뿐 아니라 나무, 기둥, 전문 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여 준다.

하늘의 半球面은 人類歷史以來 사람의 上邊視野 [upper peripheral vision]를 경유하여 왔다. 사람은 이 青天을 背景으로 크게는 山을, 작게는 나무들, 또 雲을 보아 왔다. 하면, 地 [Earth]은 사람의 下邊視野 [lower peripheral vision]를 점유하는 要素인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위와같은 天國地方의 母空間 속에서 사람은 하늘에 青天을 한 山, 하늘을 향해 펼쳐진 나무, 하늘을 악운 듯한 雲봉을 위로 보며 天地交通의 原初의 潮氣를 맡아 악고 그렇게 활으로서 天地間에 있는 山의 存在를 미하지도 밀하지도 않게 認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Ⅳ. 向天의 處를의 位階

前章에서 青天半球를 背景으로 大小高底의 垂直의 物像들이 각각 山上天의 空間 image를 이루고 있음을 論하였다.

여기서는 3章에서 언급한 太祖山, 主山의 位階의 관계에 연관하여 위의 image들이 하나의 位階의 體

系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景福宮의 예로서 설명하여 한다.

景福宮은 三角山을 太祖山으로 두고 白岳을 主山으로 한 그 南北壬壬丙向의 대에 자리 잡았다.⁽¹⁴⁾

景福宮의 中心의 垂直要素인 勤政殿, 主山인 白岳, 太祖山인 三角山은 雪峰山上天·天下山 image를 갖고 있어서 三者는 하나의 位階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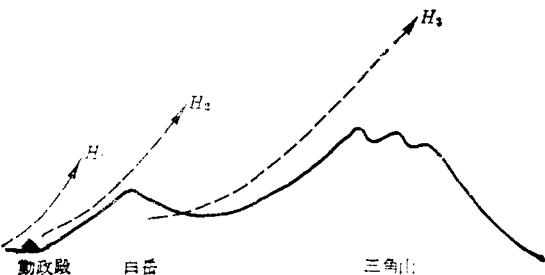


그림 1

그림 1에서 H 는 空間의 垂直의 處이며 이를 本章의 제목에서 向天의 處를이라 불렀다.

이러한 向天의 處를의 位階는 위의 셋으로 全部가 아니다. 勤政門, 殿前第一門인 弘禮門, 第二門인 光化門等에서 그 位階는 계속된다. 즉, 景福宮을 勤政殿 中心으로 南北軸으로 자른 斜面을 생각하면 主山, 太祖山과 더불어 하나의 雄莊한 向天의 파노라마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노라마는 비단 景福宮 주변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內安山인 南山, 外郭山인 冠岳山等은 南쪽 方向의 向天의 處를을 이루어 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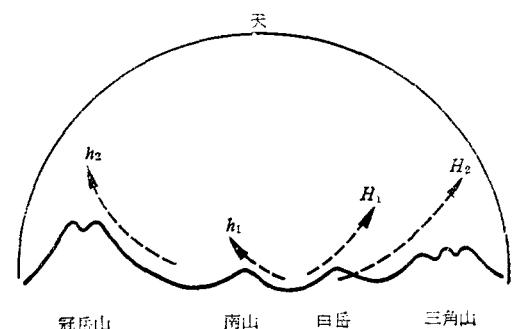


그림 2

(14)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 1963 古蹟篇』, p. 4, 44 中 ‘三角山의 白岳(白岳)’에서 확대 티작한 것이나 三角山(지금의 서운대 等)이 서울의 太祖山임은 상식적인 사실이다.

위의 그림은 外서울이라는 母空間의 diagram이다. 이를 보면 H_1h_1 으로 이루어진 内서울이라는 분지가 H_2h_2 로 이루어진 外서울이라는 큰 분지 안에 놓여진 형상임을 알수 있다.

물론 허나한 경우에서 모두 서울의 경우처럼 명쾌한 空間體系를 추출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고찰은 山과 天의 관계 및 母空間에서의 向地的 褐色이라는 空間認識의 한 대개, 그리고 母空間 안에서 母空間體系에合一하는 建築空間體系等을 하늘에 연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참 고 문 헌

1. C.S.Hall/G. Lindzey., Theories of Persona-

lity.

2. M.Eliade., Images and Symbols, Harvill Press (1961)
3. 徐善繼外, 風水地理明堂全書, 明文堂 (1975)
4. 朝鮮總督府, 朝鮮の 鄉土神祀 部落祭, 民間信仰資料叢書 (1637)
5. 울산공과대학 건축학과, 안동수몰지구 현지조사 자료 (1976)
6. 서울特別市 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 古蹟篇 (1963)
7. 林忠伸, Water in Architecture, Columbia 大 석사논문 (1968)